

## “선수행 대중화 저변 넓혔다”

범어사 설선대법회 7일 회향  
진제 스님 ‘무차선회’ 성향



설선(說禪)의 법석이 무차선(無遮禪) 법회로 회향했다.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대성(와) 현대불교신문사(사장 김광삼)가 3월 5일부터 10주 동안 공동 주최한 ‘간화선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초청 설선대법회’가 5월 7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의 회향법문과 무차선회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무차선회에서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이 범어로 나서 출·재가자들의 간화선 수행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등 8천여 사부대중에게 ‘선의 참맛’을 일깨웠다. 무차선회에 이어 거행된 설선대법회 회향식에서 대성 스님은 폐회사를 통해 “앞으로도 참된 선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법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현대불교신문사 김광삼 사장은 “세계생생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리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면 그것이 법회를 기획한 가장 큰 보람일 것”이라고 인사말을 했다. 이날 법회에는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이 참석, 축사를 했다.

회향식에서는 또 설선법회 등록자 총 2984명 중에서 10회 모두 참석한 1374명의 재가불자들에게 수료증이 전달됐다(사진). 또 참선실수 프로그램에 동참한 421명에게는 안거증이 수여됐다.

범어사=김철우 기자

관련기사 10·11면

금주 20면 발행

## 불교계 운영 복지시설들 “생필품이 모자라요”

본사, 500여 시설 실태조사… 후원 줄어 ‘생활고’ 노인복지관 4년간 2배 증가, 장애인생활시설 4곳뿐

불교계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에 쌀이나 부식 등의 식자재와 휴지, 비누와 같은 생필품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본사 부다피아 사회복지팀이 2004년 10월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500여 불교계 사회복지법인·시설, 사회복지 NGO를 대상으로 조사한 ‘제1차 불교사회복지법인 및 단체 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부다피아 사회복지팀이 불교계가 운영하는 500여곳의 복지시설들을 대상으로 우편·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했다. 전국 105개의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설문에 응답한 54개 복지시설의 복지수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 양로원과 요양원 등 보호를 목적으로 한 생활시설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물품은 기저귀·세제·비누 등의 생활용품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대용량 세탁기와 의약품·소독기·휠체어 등을 원했다. 이는 생활시설 어르신들의 경우 거동이 불편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만큼 소모품인 생필품이 항상 필요하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는 주식인 쌀과 이동차량을 원했다. 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관자를 비롯한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고 이용자와 비례해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뒤를 이어 필요하다고 답한 물품 역시 김장김치나 부식 등 식사 준비

에 관련된 식료품이라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또 전체 23개 시설 가운데 18개소가 응답한 장애인 시설의 경우 기저귀 등의 생활용품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주간·단기보호, 재활센터 등 재가시설은 쌀과 부식, 휠체어

설에서는 냉장고와 텔레비전 등을 필요로 한다고 답했다.

부다피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불교사회복지시설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들 중 차량 등의 고가 장비를 제외하고는 복지들의 모금과 후원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복지시설에 대한 복지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각 대상자별 필요 물품 정리뿐만 아니라 현재 불교복지기관의 숫자, 시설장 지위, 운영형태 등도 파악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불교사회복지시설 10개 중 3개는 조계종을 비롯한 천태종·진각종 등 큰 종단 종립 사회복지법인 산하 시설

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종단 복지기관 산하 시설들은 자체시설보다는 위탁시설이 많은 것으로 밝혀져 계속해서 불

컴퓨터 교구교재, 장애인보장구 등의 물품 후원을 1순위로 꼽았다. 유아·어린이의 장애를 돌보고 있는 시설들은 성인 시설과는 달리 어린이 의류와 컴퓨터, 공부할 수 있는 교재 등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복지시설들 역시 재가·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식사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쌀 김치 고기 등의 식료품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아이들 공부방에 필요한 교구교재와 컴퓨터, 명절 때마다 지급할 수 있는 선물 등의 후원도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보육시설은 대형세탁기와 급식용 쌀·부식, 부랑인 시설은 세제와 온풍기, 노트 등을, 정신보건시

## “부처님은 언제나 우리곁에…”

15일 조계사 등 전국 사암서 봉축법요식 봉행

불기 254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이 5월 15일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암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사에서 봉행된 법요식에서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자성(自性)가운데서 부처를 찾지않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지 마시다”라며 “꽃이 피면 한량없는 세계가 일어나고 티끌이 모여 불국토를 이룬다”라는 법어를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봉



‘누가누가 잘하나’

조계사(주지 원담)는 5월 10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신도와 지역 어르신 500여명을 초청해 장기를 뿜내는 경연대회를 열었다. 이날 조계사 스님들과 신도, 어르신들은 7개 참가팀 열띤 경기와 축하무대를 보여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사진=박재원 기자

## 염불선의 정수 ‘염불환향곡’ 최초로 완역

‘법보시’ 용으로 적격

염불은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와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워 간직하고 숭앙함으로써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높은 염불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의 방편입니다. <염불환향곡>은 18세기의 기성패성(箕城快善) 선사가 우리 마음의 본원으로 돌아가고자 지은 ‘염불송’입니다. 뜻이 깊으면서도 내용이 쉽고 운율이 부드럽고 조적 예절 후 부처님을 찬양하는 염불로 널리

염불은 거룩한 부처님의 명호와 말씀을 마음속으로 간절하게 외워 간직하고 숭앙함으로써 부처님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의 마음이 보다 높은 염불의 차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수행의 방편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인연을 맺도록 널리 보급합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보급 문의 (02)737-0695

사용되었던 아름다운 송입니다. <염불환향곡>은 염불 정진하여 고행(극락정토)으로 돌아가기를 서원하는 염원이 담긴 책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처음으로 <염불환향곡>을 한글로 완역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부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인연을 맺도록 널리 보급합니다. 법보시용으로 매우 훌륭한 <염불환향곡>을 통해 보다 많은 불자들이 숭고한 신심을 지켜 가시기 바랍니다. 보급 문의 (02)737-0695

거지고 있는 불교사회복지의 지원도 문제가 불교계가 안고 가야할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음이 확인됐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2면에 계속

그림·조태호

진제 스님의 범어사 설선대법회 법문 10·11면에

## 제 3회 세계평화기원을 위한 수륙대재 및 방생법회

(초청 : 증명법사 고산 큰스님)

- 일시 : 2005년 5월 30일 (음 4.23) 월요일 오전 10시
- 장소 : 통영시 (도남동 유람선 터미널 옆)
  - 개회식 행사장 : 도남동 도남 관광지
  - 방생법회 행사장 : 옥지면 연화도 옹머리 해역
- 문의 : 전화 055)645-6683, 645-3060 / 팩스 055)641-3060  
017-553-3397, 011-9854-7313

※ 배를 타고 방생을 하며, 방생과 연화도 참배는 무료입니다.

- 주 최 : 통영사암주지연합회
- 후 원 : 통영시, 통영관내수산업협동조합, 불교신문사, 불교방송국, 통영불자연합회

